

광주FC 신창무 “변화와 성장은 비례” 성장의 시즌 예고



지난해 200경기 출전·2골 3도움 ‘감사한 시즌’
부주장 중책 맡으며 ‘더 할 수 있다’는 믿음 생겨
“아이에게 축구하는 아빠 추억 선물 하고 싶어”

반등의 시즌을 보낸 광주FC의 신창무가 부주장으로 또 아빠의 이름으로 성장의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월 톱 없는 시즌을 보냈다. ALCE 일정으로 시즌을 열었고, 리그와 코리아컵까지 동시에 소화했다. 역대급 강행군 속에서 광주는 ACLE 8강, K리그1 잔류, 코리아컵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다.

길고 길었던 시즌이었지만 신창무에게는 끝나는 게 아쉬웠던 2025년이였다.

신창무는 “작년에 많은 경기하면서 시간이 빨리 갔다. 하위 스플릿에서 좋은 경기 해서 시즌이 끝나는 게 아쉬웠다. 시즌이 길었다면 팀적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다”면서도 “광주와서 가장 많이 뛰었고, 나라는 선수를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였다. ‘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었는데 경기장에서 보여주기가 힘든 상황이라 위축된 것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감독님께서 믿어주시고 잘할 수 있는 위주로 역할을 주셔서 잘 맞아떨어졌다. ‘아직 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돌아봤다.

지난 시즌 200경기 출장을 이룬 신창무는 2골 3도움을 올리기도 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 특별했던 추억을 쌓은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는 ‘아빠’라는 이름이 있다.

신창무는 “개인적으로는 아들이 처음 경기장에 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때는 아쉽게도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경기 뛰고 이겨서 아들이 경기장에 내려와서 같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다. 마음이 남달랐다. 지금 생각해도 벅차고, 가족에게 계속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싶다”며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팬분들도 예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최대한 더 열심히 오래오

래 해서 아빠가 축구 선수라는 것을 인지하면 좋겠다”고 웃었다.

아빠라는 이름은 그라운드 밖에서의 모습도 바꿨다.

신창무는 “아기가 없을 때는 운동선수라 개성도 있고 마찰도 있고 그랬다. 아기가 생기니까 다 부질 없었다. 내 자존심이고 뭐고 축구장에서 가장 잘하는 게 1번이다. 아들을 위해 계약 연장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쏠린다 보니까 달라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할 나위 없던’ 한 해를 보냈지만 마지막 순간은 진한 아쉬움이 됐다.

신창무는 “코리아컵 우승컵을 팬들에게 선물하지 못한 게 아쉽다. 베테랑에게는 아쉬웠던 경기였다. 동생들에게는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자산이 되는 경기였을 것이다”고 코리아컵 결승전을 떠올렸다.

좋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2026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광주에는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광주는 선수 유출 속 이적규 감독 체제로 새로 시작한다.

신창무는 “영입 보다는 빠져나가는 오피셜만 뜨니까 팬들이 걱정 많이 하시고 마음고생하시는 걸로 아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시작이 쉽지 않지만 무너질 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버티는 게 아니라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위 스플릿을 팀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적인 목표는 부상 없이 최대한 많은 경기 나가서 10개 공격포인트를 하는 것이다. 팬분들에게 버티는 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성장을 이야기하는 신창무는 순조롭게 광주의 시즌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신창무는 “시스템은 비슷한 게 많지만 감독님이



광주FC의 신창무가 부주장으로 2026시즌 팀 전면에 선다. 태국 후아히에서 진행된 1차 동계훈련 자체 연습경기에서 신창무(왼쪽)가 공을 몰고 질주하는 모습.

추구하는 축구 차이점은 극명한 게 있다. 작년에 좋은 것들을 가져오지만 그것만으로 이어갈 수 없다. 많이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한다. 빨리 받아들이수록 성장에 비례한다”며 “공격적인 수비를 준비하고 있다. 의심 보다는 믿고 해보자는 분위기다. 일단 해보면서 단계별로 좋아지고 있다. 서로 믿음이 없

다면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없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태국 후아히에서 진행된 1차 동계훈련 성과를 이야기했다.

광주 공격을 책임지게 될 그는 부주장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신창무는 “영구 형을 필두로 형들과 동생들의 좋

은 연결 고리가 되겠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다. 말만 많은 형들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 형들에게 믿음이 갔었다”며 “많은 역할을 주셨으니까 개인이 아닌 내 팀이라는 생각으로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대한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늦깎이 아빠 KIA 고종욱 “최고참 본 보이겠다”

딸 출산 후 책임감 더해
몸 관리·타격으로 새 시즌 준비



KIA 타이거즈의 고종욱 <사진>이 두 가지 책임감을 안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고종욱은 올 시즌 KIA 야수 최고참이 됐다. 굳게 자리를 지켜왔던 최형우가 FA를 통해 삼성으로 떠나면서 고종욱이 야수 최고참이 된 것이다.

또 다른 변화도 있다. 지난 12월 고종욱은 예쁜 딸을 얻었다. 도래 선수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고종욱은 아빠가 됐다.

두 책임감은 고종욱을 부지런히 뛰게 하는 이유다.

고종욱은 “애를 낳고 이렇게 축하받고, 축하를 해주는 건지 몰랐다.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았다. 너무 감사하고 나도 앞으로 후배들 아가 있으면 많이 챙겨주려고 한다”며 “예전에는 애가 없으니까 힘들어도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면 너무 좋다고 하는 게 공감 안 됐다.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길에서 다른 애들을 봐도 너무 예쁘다.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고종욱은 아이 앞에서 더 오래 야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보내고 있다.

고종욱은 “애를 낳아서 그런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때 열심히 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을까 하는 후회도 한다. 왜 코치님들과 선배님들이 그런 말들을 했는지 그때는 몰랐다. 후회스럽지만 어차피 세월은 갔다”며 “잘 준비해서 앞으로 내가 잘하면 조금이라도 연장하면서 아기가 내가 야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잘해야 한다”고 아이 앞에서 야구를 하는 순간을 그렸다.

아빠로서는 막내지만 타석에서는 고종욱이 ‘관형’이다. 많은 이들은 ‘통산 3할 타자’ 고종욱이 결정적인 순간 흐름을 바꾸는 타격을 선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선배의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더는 유망주도 아니다. 나이 많은 아빠”라면서 웃은 고종욱은 “나이가 많을수록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팬들이나 감독님이 기대하는 것은 타격이다. 타격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타격을 잘하면 수비도 편하게 잘될 것이다. 나한테 기대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더 준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몸이 좋지 않아 아쉽게 시즌을 일찍 마감했던 만큼 고종욱은 ‘몸관리’에 우선 신경 쓰면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고종욱은 “잘 자고, 잘 먹고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열이 나고 염증으로 시즌을 그대로 마무리해서

아쉬웠다. 힘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나이가 있으면 체중관리나 체지방 관리가 중요한 것 같다. 염증이 많이 줄 것 같다고 해서 체중 관리를 많이 했다”며 “몸관리 더 잘하고 음식도 신경 쓴다”고 말했다.

이어 “올 시즌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야구장에서 다치는 것 말고 지난해처럼 아프면 안 된다. 감독님 구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시합을 뛸 수 있다. 안 쓰면 안 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 잘 준비해서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시즌 유니폼 공개

3월 1일 창원 경남전서 첫 선

전남드래곤즈가 2026시즌 새 유니폼<사진>을 공개했다.

필드 홈 유니폼은 구단의 연고지인 전남도의 상징인 ‘황금빛 들판’을 담은 옐로우 컬러를 중심으로 디자인됐다. 전남의 자연과 태양, 바다의 흐름을 형상화한 기하학적 패턴을 유니폼 전반에 입체적으로 적용해 깊이감 있는 컬러감을 구현했다.

또 블랙 컬러의 소매와 넥 라인을 배치해 시각적 대비를 주고 선수들의 에너지와 투지, 응집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다.

필드 원정 유니폼은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했으며 블랙 소매와 어깨 라인을 통해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전면 패턴을 톤온톤 방식으로 은은하게 반영해 통일감을 유지했으며, 넥 라인에 깃을 더해 단정함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했다.

골키퍼 특유의 카리스마를 강조하기 위해 GK 유니폼은 강렬하고 선명한 퍼플과 그린 컬러를 채택했다.

생동감 넘치는 두 색상 위에 구단 영문 약자인 ‘JD’를 반복적으로 변형한 패턴을 적용해 갑옷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구현했다. 이는 골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유니폼은 ‘주케이엔코리아’의 용품 후원



을 통해 27년 만에 재회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리복(Reebok)의 로고가 적용됐다. 또 구단 디자인 파트너사 ‘주식회사 플렉’이 디자인을 맡아 전남만의 정체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

전남의 2026시즌 유니폼은 오는 2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 선수들은 새 유니폼을 입고 3월 1일 오후 4시 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를 상대로 2026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공식 캐치프레이즈 ‘우리 곁에, K리그’

2026시즌 K리그 공식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곁에, K리그’로 결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8일 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8개 후보를 선정한 연맹은 온라인 팬 투표(30%), 구단 관계자 심사(30%)와 전문가 심사(40%)를 합산해 ‘우리 곁에, K리그’를 결정했다.

K리그가 경기장을 넘어 일상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담은 ‘우리 곁에, K리그’는 팬 투표와 구단 관계자, 전문가 심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팬 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연맹은 캐치프레이즈 디자인에도 리본처럼 이어지는 ‘곁’의 획을 활용해, ‘K리그’와 ‘우리(팬)’의 지속적인 연결을 시각화했다.

선정된 캐치프레이즈는 ▲K리그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K리그 경기장 배너 및 옥외 홍보물 ▲K리그 관련 MD 및 각종 캠페인 소재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팀 K리그’ 친필 사인 아디다스 유니폼 1벌이 제공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